“온열질환자에 얼음 쏟아붓거나 억지 물 섭취 조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정호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온열질환 응급조치’
골든타임 30분…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바로 119에 신고
급격한 체온변화 환자에 부담…몸에 물 적셔 체온 낮춰야

이정호 교수

최근 폭염으로 광주·전남의 온열질환자 수가 2개월새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온열질환 응급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남대병원 이정호 응급의학과 교수는 12일 “환자의 몸에 얼음을 쏟아 붓는 등 급격한 체온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는 삼가야 하며, 의식이 흐릴 때 억지로 물을 먹이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열질환의 골든타임은 보통 30분이며, 의식장애·구통 등의 증세가 발생하면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바로 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온열질환 예방법.

-온열질환은 어떠한 질환인가

▲외부 온도 상승으로 체온이 올라 신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온열질환 체온상승, 수분소실 등 공통적인 원인이지만 증상에 따라 구분된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가 넘고, 의식장애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일사병은 체온이 40도가 넘어가진 않고 무력감이나 구토 증세 보일 때. 열실신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을 때. 열경련은 수분과 염분 소실로 인한 근육통이 발생할 때를 말한다. 치료는 공통적으로 체온을 낮추고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온열질환 발생 때 응급조치는

▲체온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주변 환경을 피하거나 노동을 즉시 중단하고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얼음주머니가 있을 경우, 목·겨드랑이·사타구니 등에 대어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얼음이 직접 닿는 것은 국소통증과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

-효과적으로 체온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시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물을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병원에서도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응급조치에서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단순히 체온을 낮추려고 환자의 몸에 얼음을 쏟아붓거나, 냉수마찰 같은 것은 급격한 체온변화로 환자에게 다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또 환자의 의식이 흐려지거나 없을 경우, 억지로 물을 섭취하게 하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이 일어날 수 있어 위험하다.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할 때 정상으로 표시되더라도 몸 안쪽의 중심체온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며, 증상에 따라 처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온열질환의 골든타임과 후유증의 상관관계는

▲온열질환은 보통 30분이 골든타임으로 알려져 있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65세 이상일 땐 50% 이상으로 높아진다. 열사병 단계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노출시간에 비례해 손상 정도는 커진다. 신경학적인 손상과 더불어 심혈관, 신장 손상으로 인한 평생 투석 등 심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밭일 등 야외 활동시 주의사항은

▲시원한 물 또는 전해질 음료를 가지고 갈증이 없더라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서 햇빛을 차단하는 게 좋다. 또 통풍이 잘 되고 반사도가 높은 밝고 헐렁한 작업복을 추천한다. 응급상황이 되면 본인이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항상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한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전남대병원, “서남권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필수”

정 신 원장, 포럼서 ‘도심집적형 AI+Bio 융합 메디컬 클러스터’ 제시
“AI기반 첨단의료기기 실증 및 재생의료 R&D 인프라 집중 투자 필요”

전남대병원이 광주·전남지역을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략적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서남권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 신 전남대병원장은 지난 9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포럼’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이 인공지능, 정밀의료, 재생의료 기술의 혁신과 함께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남권 바이오헬스 복합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연구와 임상, 산업화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국가적 전략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AI 기반 첨단의료기기 실증 및 재생의료 R&D 인프라에 대한 지역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며 “연구 성과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R&D, 임상시험, 데이터 연계, 기업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국가 확산형 시범모델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전남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이유로 우수한 의료·연구 인프라를 꼽을 수 있다.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정밀의료 및 암 치료 분야에서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으며,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도 기초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내 의료기기나 약품의 임상시험 등 실증을 담당할 대형병원이 위치해 있어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광주·전남지역에 서남권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은 필수다.

정 원장은 광주·전남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도심집적형 AI+Bio 융합 메디컬 클러스터’를 제시했다. 광주는 AI 기반 첨단의료기기 개발 기술을, 전남은 백신·원료의약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두 기술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 AI기반 연구역량과 국가적 수준의 임상 역량을 갖춘 광주 동구 일대와 전남 화순의 지리적 근접성과 기능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AI+Bio 융합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과도 완벽히 일치하며, 대한민국 바이오벨트의 핵심 퍼즐 조각으로서 광주·전남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서남권 유일 제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획득하고, 국가 지역의료역량 강화사업 선정,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임상지원 플랫폼 구축 선정 등 타지역 대비 탁월한 연구성과와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K-바이오헬스 개방형의료산업지원 간담회’

화순전남대병원이 지난 1일 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김재봉홀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과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개방형의료산업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병원 현장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술을 신속히 검토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와 유관기관, 지역 바이오기업과 함께 의료기술을 실제 병원 현장에서 시험하고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천 전략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간담회에는 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병원-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업책임자인 김형석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간담회는 ㈜아이피온 박성용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특강, 기관 간 네트워킹 및 협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석 연구원장은 “병원이 보유한 임상 경험과 의료 인프라를 지역 바이오기업들과 공유하고 공동기술 검증과 적용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화순전남대병원은 병원 중심의 개방형 협력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조선대병원, 환자안전 ‘리더십 안전라운딩’

위험요인 점검 개선방안 논의

조선대병원이 지난달 25일 환자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중심의 ‘2025년 1차 리더십 안전라운딩’을 진행했다. 〈사진〉

리더십 안전라운딩은 환자안전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를 전달하고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환자안전 위험요인을 확인하며 개선을 위한 의견 공유 등 환자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질관리실이 주관한 이번 안전라운딩은 김진호 병원장을 비롯해 집행부 등 병원 리더로 구성된 위원들과 실무진이 병동, 및 외래진료실, 외래검사실(검체/영상), 통원수술센터, 약국 등 환자접점부서들을 둘러보며 환자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안전라운딩은 ▲정확한 환자확인 시행 점검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내용 원내 점검 등으로 평소 인지하지 못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진호 병원장은 “환자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환자안전의 첫걸음은 정확한 환자확인에서 기인한다”면서 “환자안전을 늘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환자분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환자안전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을 함양하여 환자안전사고 자발적 보고 활성화 및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반기별 1회 리더십 안전라운딩을 실시하고 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